[2020\_와디즈닥터(what is Doctor?)]

-“의사가 될 때 가져야 할 기본관념은 무엇인가?”-

제 출 자 : 고유석, 지정훈

지도교사 : 강명구

2020 . 10 . 14 . 수요일

**목 차**

1. 서론 ---------------------------------------------------------------------------------------------------1

가. 활동소개(문제의식)----------------------------------------------------------------------------------1

나.

한국 의사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환자의 관점, 의학계의 정설, 의료계, 나라의 문화)--2

1. 본론 ---------------------------------------------------------------------------------------------------3

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 좋은 의사란? 3

다. 의사로서 갖춰야할 덕목 3

라. 의사의 최우선 윤리의식

1. 결론

- 와디즈 닥터가 생각하는 의사가 될 때 가져야 할 기본관념이란?

1. 서론

가. 활동소개

 이 소논문은 와디즈닥터(What is Doctor?)창의활동의 첫 번째 활동인 ‘한국에서 의사가 될 때 어떤 관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글은 팀원 고유석, 지정훈 학생이 주제에 대하여 각자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와 토론을 거쳐 와디즈닥터만의 견해가 담겨있는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논문에 사용된 모든 내용의 기준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발췌 및 인용되었다. (그에 따른 출처정보는 주제마다 게시됨.)

 소논문에 나오는 모든 견해는 그것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미래에 의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이 소논문을 작성하고 또 감상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현시대 한국에서의 의료환경과 문화를 잘 파악하여 올바른 의료문화를 익히고 또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료계의 새로운 의료문화를 만들어나가게 될 의사로서 올바른 의료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하는 탐구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나. 한국 의사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현재 한국 의사를 보는 관점은 크게 4가지라고 본다. 의학계, 의료계,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그리고 나라의 문화이다. 이 활동을 하고자 함은, 현재 의사가 대우받는 것의 결정적인 요소인 네 가지 관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의사가 가져야 할 기본관념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활동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 사용하려고 한다. 의사가 대우받는 것은 곧 올바른 가치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본론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의학계는 의학을 다루는 의대생과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이렇게 두 위치에서 한국 의사를 보는 관점을 해석한다. 현재 한국의 의대생은 히포크라테스 선서(현재는 제네바 선언)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 배움 활동이 의사에 대한 가치관과 관념을 배우는 중심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교수들은 몇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소논문에서 다루게 될 교수들이란, 의대생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수들(실기가 아닌 이론에 관한 탐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중 상당수의 교수가 현직 의사로 복무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실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과거에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런 학문적인 의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의학계의 교수란 이렇게 정의한다.

 두 번째로 의료계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주도해 나가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및 의료(진료)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에 대한 좋은 자료의 출처가 되는 예수병원 윤용순(재활의학과 전문의)님과 이국종 교수님의 2017년 8월 세바시 강연이 좋은 자료로 사용되겠다. 이 자료들의 사용근거는 앞서 설명한 두 의사분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고 또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들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은 직접적으로 한국 의사들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예로 2020년 3월에 개봉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종합병원에서의 현실적인 의사 생활에 대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줄줄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외래환자들이 있는데 먼저 외래를 받으러 들어간 환자가 오랜 시간(드라마 속 환자들 기준) 나오지 않자, 불평불만을 보이는 환자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네 번째로 나라의 문화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와 제도를 말한다. 하루에 한국 의사들이 보는 진료의 양, 정부가 하는 역할과 병원마다 의료제도의 차이점(병원이 있는 곳의 지역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과 그 지역의 도민, 시민들에 대한 시청(시청도 정부에 포함한다.)에서 주도하는 의료 민원 및 캠페인과 프로젝트와 같이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마주치는 현실들이 한국 의사들을 바라보고 있다.

1. 본론

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의 윤리에 대한 대표적인 선서문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그는 자신이 세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치료의학의 발달을 세워 환자들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실제로도 많은 의대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면 흰 가운을 입고 졸업식장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과 함께 원래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구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세계의사협회에서 개정된 제네바 선언을 선서한다고 한다.

선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2.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3.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4.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5.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6.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7.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8.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9.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10.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안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11.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영국의 종합 의학위원회의 우수 의료 실무와 같은 국립 의학 협회가 발행한 보다 광범위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윤리 강령에서 이러한 직업윤리 문서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이 선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의과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나. 좋은 의사란?

 앞서 설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핵심 내용은 좋은 의사로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의사를 꿈꾸는 의대생들과 우리 같은 청소년들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막연히 ‘착한 의사’가 과연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착한 의사’ 즉, ‘좋은 의사'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시대별로 좋은 의사의 기준은 달라져 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의과대학에서 제시하고 있고, 언론이나 매체 속에서의 ‘좋은 의사'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정의해보았다.

 먼저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에서의 교육목표를 살펴보자.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직업윤리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의사의 직업윤리관이란 정체성과 책무성, 봉사정신, 자기관리 및 평생학습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좋은 의사는 자신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짐을 깨달아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감, 봉사정신, 지속적인 학습의지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진료능력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는 의학 지식과 술기를 포함한 내용으로서 ‘의사로서의 실력’을 강조한 내용이다. 즉,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다면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대학들의 교육목표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착한 의사가 곧 좋은 의사라는 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나 의사소통 능력은 최근에 진료능력에 있어 핵심이 되는 역량으로 미디어 속 좋은 의사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세 번째로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는 문제해결능력, 협동정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과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PBL 등의 여러 조별학습도 이러한 리더십 역량 증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병원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인들이 다 같이 의료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좋은 의사는 리더십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점이 현재 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좋은 의사의 자질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진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생명을 존중하고 실력이 뛰어나며 리더십을 갖춘 의사가 좋은 의사일 것이다. 현대에 들어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역량은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 될 것이다.

다. 의사로서 갖춰야할 덕목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다. 그러기에 의사는 환자의 질환에 대하여 잘 알아야 잘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지식만 있어 오로지 질병만을 보고 환자의 전체 상태를 판단한다면 반쪽 치료가 되기 쉽다. 환자의 질환과 환자의 상태는 질병 자체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처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질병만을 보더라도 환자의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환자로부터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는가가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한 여러 전문가와 의료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는 환자를 즉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직업인이다.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비밀을 알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질병이 있다는 자체가 환자로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주는 것 역시 의사로서 중요한 책임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은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 환자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한 인격체로 보고 다룰 수 있는 능력,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주위 여건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자세,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협조를 얻어내는 능력과 의사로서의 철저한 직업윤리 의식 등 일 것이다. 물론 어느 분야이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다.

 예수 병원 재활치료 전문의 윤용순 교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진료, 행정, 교육, 연구 이렇게 4가지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만 이는 일반 전문의들의 덕목이며, 크리스천 전문의들은 여기에 선교라는 덕목이 추가되게 된다.

한국의 의사들과 미국의 의사들의 차이는 이런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진료, 행정, 교육, 연구 이 4가지 영역들을 분업하지만 한국의 의사들은 multipotential이 이루어져야만 병원이 돌아간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한국의 의사들은 터무니없는 교만함으로 엘리트 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한 의사가 해내야 하는 일들이 많음에도 문제가 있다. 환자들하고의 수많은 일들, 병원의 행정, 후배양성을 위한 교육까지 한국의 의사들은 신경써야 할것이 너무나도 많다.

 윤용순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 우리가 돌보는 환자들은 나에게 환자일 뿐이다. 그 사람이 어느 직책, 환경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그들을 이해하면 안 될 것이다.” 이에 의사는 프로의식을 겸비한 채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셨다. 이에 더불어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 전문의가 될 것이라면 의료선교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역이라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전도하고 공부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라. 의사의 최우선 윤리의식

 의사윤리지침은 의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학문에 기초하여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며 윤리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사의 일반적 윤리

제3조(의사의 사명과 본분)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최선의 의료행위 및 교육이수)

1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의사는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연마하며, 그에 따르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의료 제공)

1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의사는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품위 유지)

1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상규를 지키며,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의사는 의료 행위 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1 의사는 마약,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사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의사는 인간의 생명,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9조 (의무기록 등의 정확한 기록)

1 의사는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의사는 환자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의사는 의무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의료인 양성의 의무) 의사는 후학들의 교육 및 임상능력 증진과 전문적 덕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자에 대한 윤리

제11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

1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의사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의식불명의 상태인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환자의 평소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의사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본인 및 환자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환자의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의사는 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보장하기 위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미리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

1 의사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여야 한다.

2 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하며, 치료목적 이외에 불필요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의사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4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제13조(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1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 된다.

2 의사는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경력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제14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1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료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3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다.

제15조(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

1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환자에게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질병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의사는 환자 진료 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의사는 환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내용을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의사가 제1항의 설명을 환자에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가중하는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향후 치료 진행이나, 건강 회복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1 의사는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라도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2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유지치료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3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환자 비밀의 보호)

1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의사가 환부 촬영 등 의무기록상 필요한 사항 이외의 진료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의사는 미성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4 의사는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5 의사는 의학적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및 이송)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능력과 시설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결론

가. 와디즈 닥터가 생각하는 의사가 될 때 가져야 할 기본관념이란?

 와디즈 닥터라는 수업은 의사를 직업으로 꿈꾸는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탐구해보는 수업으로, 올바른 크리스천 의료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기본관념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료선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활 속 의학지식을 베풀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환자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해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 앞으로 의료진이라는 꿈을 가지고 드리미 학교를 입학하는 후배로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선배 된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을 비롯하여 그동안에 해왔던 길 들과 크리스천 의사라면 지켜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선배들의 길을 후배들 또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 진정한 크리스천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이 기본관념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와디즈 닥터 크리스천 의사 선언문>

1. 나의 모든 생애를 인류 봉사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겠습니다.
2. 진료
*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겠습니다.
* 환자에 대해 일관적인 시선만이 아닌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1. 행정
* 주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가족처럼 여기겠습니다.
*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병원에서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연구
*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습니다.
*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안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습니다.
1. 교육
*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습니다.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선교
*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병원 업무 보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더 힘쓰겠습니다.
*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희생과 섬김이 삶이 되는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크리스천 의사로서 나의 명예와 믿음을 걸고 위의 서약을 하겠습니다.